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평가론의 재조명*

설 문 원**·김 영***

1. 들어가는 말
2.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
 - 1)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개념
 - 2) 기록평가 측면에서 본 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징
3. 기록평가론의 전개와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론의 의미와 한계
 - 1) 기록속성론에 입각한 생산자 중심의 평가
 - 2) 기록가치론에 의한 개별기록의 가치 분석
 - 3)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거시평가론
 - 4)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 측면에서 본 기존 평가론의 한계
4.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 모형을 위하여
 - 1) 평가의 목적과 대상
 - 2) 평가의 원칙과 기준
 - 3) 평가의 주체와 협력
5. 맺음말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3A2054223).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주저자. 주요 논저 : 「공간 중심의 로컬리티 기록화 모형의 설계」,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2012. 12; 「단위과제 기반 공공기록물 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013.12

***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주요 논저 :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참여의 맥락 : 밀양765kV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공저), 『기록학연구』 44, 2015.4; 「밀양765kV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대한 젠더 분석 : 젠더 점핑의 과정과 원인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1(2), 2015.6.

▪투고일 : 2016년 3월 30일 ▪최초심사일 : 2016년 4월 1일 ▪게재확정일 : 2016년 4월 15일.

[국문초록]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가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이며, 축적된 기록은 공동체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원이 된다. 이러한 기록 중 어떠한 기록을 남길지는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어떤 기억을 남길지를 정하는 정치적인 행위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하였다고 해도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이에 대한 기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록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남겨지기를 원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기록평가론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에 있어서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평가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록의 수집하고 보존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공동체가 아카이브가 공동체는 물론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제시하기 위하여 정체성, 기억투쟁, 가치의 개별성, 기억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공동체와 사회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 설정은 기록평가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기록평가론의 흐름을 패러다임별로 살펴보았다. 기존의 기록평가론이 대부분 정부기록, 공식조직의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법이 비공식조직 및 개인이 주로 생산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론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평가론의 흐름상 어떤 지점에 위치하게 될지를 생각해본다는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중 사회적 접근법을 응용하되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새로운 평가모형을 평가의 목적과 대상, 원칙과 기준, 주체와 협력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평가의 목적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두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다양성을 중심으로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평가 주체와 관련하여 공동체와 주류 문화기관의 협력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는 ‘로컬리티 기록화’를 통해 축적된 다양한 소규모의 ‘공동체에 관한 아카이브’들을 ‘공동체 아카이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록관리 전문가집단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모색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기록평가론, 공동체 아카이브, 공동체 기록화, 로컬리티 기록화, 기억의 정치, 집단기억

1. 들어가는 말

기록평가(archival appraisal)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남길 기록을 선별하는 일이다. 기록의 유일성 때문에 평가는 어떤 기억이 역사에 남겨지고 어떤 기억이 영원히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질지를 결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지난 백여 년 동안 기록학에서 기록평가는 다른 어떤 영역보다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킨 주제였다.

최근 국내외 기록학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를 꼽으면 ‘공동체 아카이브’일 것이다. 서구에서 초기에 부상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가치는 ‘다양성(diversity)’이었다. 전통적인 선별평가를 통해 ‘주류 문화기관’¹⁾이 수집하는 기록의 편향성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소외집단, 일반 개인의 기록을 남기자는 취지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한 다양성의 추구는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는 단

1) 해외 논문에서 mainstream repositories로 지칭되는 기관들로서 이 논문에서는 공공부문이나 대학 등의 기록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할 것임.

순히 기록물관리기관이 수집 영역을 넓히고 다양화하자는 취지를 넘어 기록관리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데에 이르고 있다. 주류 문화기관의 수집 대상으로서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보는 접근법에서 벗어나 공동체가 스스로 자신의 기록을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록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하고, 다양한 비공식조직과 민간의 기록을 전문적 연구와 실천의 중심에 세움으로써 당대 사회적 기억의 형성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기록관리의 전문적 영역이었던 평가와 기술 업무에 적용되어 왔던 기존의 원칙들의 해체 혹은 무용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가 기록관리계에 던지는 문제는 매우 본질적이다. 공동체의 개별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자칫 “모든 기록에는 고유의 가치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면 공동체 기록 평가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공동체 기록의 평가 주체는 공동체다”라는 선언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김익한은 2010년 연구에서 공동체 복원 운동의 일환으로 마을아카이브 만들기를 주장하며 이때 기존의 기록관리와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²⁾ 특히 이 연구는 마을아카이브 구축의 주체를 마을운동 실천가로 설정하고, 아래로부터의 아카이빙 운동을 주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을 기반의 공동체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손동유와 이경준³⁾은 마을에 ‘작고 다양한’ 아카이브를 많이 만들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사례들을 실천적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기록학계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적으로 제안한 것은 이영남⁴⁾으로 홍성 풀무학교 공

2) 김익한,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26, 2010.10, 151~172쪽.

3) 손동유, 이경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35, 2013, 161~206쪽.

4) 이영남,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2012, 3~42쪽.

동체 컬렉션을 사례로 공동체의 정체성(‘공동체성’으로 표현)에 기반한 기록관리를 제안하였다. 이어서 윤은하⁵⁾는 서구에서 진행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성립배경을 깊이 있게 소개하였다. 이경래⁶⁾, 이경래와 이광석⁷⁾ 등은 영국과 미국에서 전개된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과 이론적 성과를 소개하고 이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의 중요성을 적극 주창하였다. 이경래 등의 논문들은 대체로 ‘기억 정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기록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고려한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조직에 대해서는 조은성⁸⁾과 현문수⁹⁾의 연구가 있는데 조은성은 공동체 관점에서의 기록 기술(description)을 고민하고 있고, 현문수는 공동체 아카이브 공유의 측면에서 기술 문제를 다루고 있다. 공동체 활동을 기록화하기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로는 설문원¹⁰⁾,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¹¹⁾, 현문수¹²⁾,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¹³⁾의 연구

5)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2012, 3~37쪽.

6) 이경래,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기록학연구』, 38, 2013, 225~264쪽; 이경래, 2014. 「호주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와 ‘평행출처주의’의 현재적 의미」, 『기록학연구』, 40, 2014, 29~60쪽; 이경래, 「마을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 연구」, 『기록학연구』, 45, 2015, 51~82쪽; 이경래,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기록학연구』, 46, 2015, 5~44쪽.

7) 이경래, 이광석,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37, 2013, 3~39쪽.

8) 조은성,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7, 2013.7, 75~142쪽.

9) 현문수, 「민간·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방향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3), 2013, 127~150쪽.

10) 설문원, 「환경갈등의 기록화를 위한 내러티브 설계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사례로」, 『기록학연구』, 42, 2014.10, 287~326쪽.

11)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을 사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4), 2014.11, 7~36쪽.

가 있다. 최재희¹⁴⁾는 영국의 공동체의 정체성 제고와 사회통합 기초 정책과 맞물리며 추진된 ‘Moving Here’ 프로젝트를 사례로 공동체 기록이 역사교육을 선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곽건홍¹⁵⁾은 공동체 아카이브에 시사점을 주는 기록관리의 관점 전환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이루어진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와 주장들은 서구의 사례에 기댄 것이거나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아직 우리나라에 공동체 아카이브라는 ‘현장’을 제대로 찾기 어려운 상태에서 경험이 입각한 ‘이론’을 전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이렇게 발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공동체 아카이브를 실천적 영역으로 받아들이려면 보다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평가론의 전개와 관련해서는 이승억의 일련의 논문¹⁶⁾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 평가론의 전체적인 흐름, 특히 거시평가론과 포스트모더니즘 평가론에 대한 그의 분석은 탁월하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론이 공동체 아카이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모색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있다.

12) 현문수, 「로컬리티 아카이브로서 참여형 노동 아카이브 개발 모형 설계」, 기록학연구 41, 2014.7, 3~38쪽.

13) 현문수, 전보배, 이동현,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실행 방안 : 부산 영도 지역 조선(造船) 노동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기록학연구』, 42, 2014.10, 245~285쪽.

14) 최재희, 「영국의 마이너리티 역사교육과 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확대 연구」, 『기록학연구』, 36, 2013.4, 121~152쪽.

15) 곽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2011, 3~33쪽.

16) 이승억,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2, 2005, 37~80쪽; 이승억, 「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Macroappraisal)’ 적용 시론」, 『기록학연구』, 14, 2006, 119~152쪽; 이승억, 「경계 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2013, 189~223쪽; 이승억, 「동시대의 기록화를 지향한 보존기록 평가선별에 관한 제언」, 『기록학연구』, 42, 2014, 185~211쪽.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이 연구에서는 특히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동희, 김유승은 사회적 기억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업무를 평가와 선별로 보았으며¹⁷⁾, 크레이그(Craig)는 기록평가가 “사회적 기억을 형성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에 기록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활동으로서 아키비스트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하였다.¹⁸⁾

공동체 아카이브에 있어서 평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며, 기존의 기록평가론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에 있어서 갖는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평가는 어떤 지향을 가져야 하는지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를 조사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그 특징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기록평가론의 흐름을 공동체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평가모형을 평가의 목적과 대상, 원칙과 기준, 주체와 협력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

1)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의 개념

공동체는 사회학, 인류학, 지역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는 주제이며, 분야마다 혹은 학자마다 공동체에 대한 개념 규정은 다양하

17) 신동희, 김유승,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 기록과 기억의 이론적 고찰」,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16(1), 2016, 41~59쪽.

18) B. L. Craig, Selected Themes in the Literature on Memory and Their Pertinence to Archives. *The American Archivist*, 65, Fall/Winter 2002, pp.276~289; 신동희, 김유승, 위의 글, 53~54쪽에서 재인용.

다. 사회학에서 공동체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양쪽은 공동체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한다.¹⁹⁾ 전자는 “공동체라는 실체를 전제하고 그것들을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개념적 구성물”로 보는 입장이고 후자는 당시 사람들이 갖는 미래 비전과 이상이 투영된 개념으로 보는 입장이다.

공동체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공동체는 앞의 두 가지 유형 중 전자에 해당하며 구성원들이 공동체 귀속감을 가지며, 실체적으로 존재하고 유지되는 공동체를 의미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혈연공동체 등을 제외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되기보다 자신들이 지향하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형성·유지되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공동체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이민자 공동체의 경우도 출신 지역이나 국가, 민족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구성되지만 이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권익보호와 문화적 다양성의 추구라는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데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러한 관심이 기억과 이야기를 모으고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데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공동체에는 마을공동체, 특정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 모임, 성 소수자(LGBT) 공동체, 환경운동 단체, 이주여성공동체, 탈북민 공동체에서부터 이념적이거나 정치적 지향성 없이 공동의 관심사와 친밀성을 토대로 구성되는 특정 연예인 팬 공동체, 학회 회원, 만화동아리, 재즈음악동호회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는 데에 특히 관심을 갖는 공동체는 주로 사회적 배제집단의 경험을 가졌거나 사회적으로 권력 주변부에 위치한 집단들이다. 영국에서는 이민자 집단이나 노동자 공동체, 호주에서는 원주민 공동체나 성 소수자 공동체, 미국에서는 유색인종 및 다문화 공동체의 아카이브 운동이 주목받고 있

19) 이선미, 「근대사회이론에서 공동체 의미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사회학』, 42(5), 2008, 101~139쪽.

으며 이러한 아카이브 활동은 매우 정치적인 문화운동으로 인식되고 있다.²⁰⁾ 서구의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에서도 그러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주로 이렇게 기억공동체를 추구하는 아카이브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영국의 기록학자 앤드류 플린(Andrew Flinn)은 공동체를 “지역, 문화, 신념, 배경, 공유하는 정체성이나 관심사를 기준으로 자신들을 규정하는 집단”이라고 정의했는데²¹⁾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해당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캐나다, 미국, 호주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주류 문화기관의 수집대상으로 보는 경향을 반영하여 ‘공동체에 관한 기록’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²²⁾ 영국에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통해 주로 수집된 자료의 집합체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자료의 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권을 행사하는 아카이브”²³⁾ 라고 정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카이브에 대한 통제권한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조사들에 의하면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으며,²⁴⁾ 아카이브를 운영하

20) Mary Stevens,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1-2), 2010: 59-60.

21) Andrew, Flinn, “Community histories, community archives: Som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8(2), 2007, pp.151-176; 설문원, 「디지털 환경에서의 로컬리티 기록화 방법론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2011, 207~230쪽에서 재인용.

22) 이경래, 이광석, 앞의 글, 14~15쪽.

23) Andrew Flinn, et al. 2009, “Whose memories, whose archives? Independent community archives, autonomy and the mainstream,” *Archival Science*, 9, 2009, p.73.

24) Michelle Caswell,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ival Science*, 14, 2014, p.307.

는 공동체의 성격만큼 이들의 의도도 다양할 것이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를 논하려면 공동체 아카이브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기존의 평가론이 중심에 두었던 공식조직(정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기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평가대상에 대한 검토 없이 평가방안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과연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록의 수집하고 보존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공동체에게 아카이브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 기록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측면 모두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의 방향과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2) 기록평가 측면에서 본 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징

(1) 공동체의 정체성과 아카이브의 독립성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가 생산하거나 수집한 기록을 의미한다. 이렇게 축적된 기록은 공동체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원이다. 따라서 공동체 아카이브를 “공동체가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화하려는 노력의 산물”²⁵⁾로 정의한다. 전쟁이나 식민지 등 동일한 역사적 경험을 하였다고 해도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이에 대한 기억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스스로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억하고자 한다.

기억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지머슨(Jimerson)은 “현대사회에서 기억은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 정체성의 열쇠”라고 강조하였다.²⁶⁾ 인간은 기억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25) Andrew Flinn, et al. 2009, p.75.

26) Randall C. Jimerson,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옮김,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2016, 295쪽.

집단기억은 국가나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많은 기억이 담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잊히거나 은폐된 주변부 집단의 역사를 담은 기록이 발견되고 공유되고 공개됨으로써 이들의 정체성이 새롭게 인식될 수 있었던 여러 사례들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엘리자베스 카플란(Kaplan)은 유대인역사협회의 기원을 추적하면서 소외집단이 하나의 응집된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것을 자신들보다 더 큰 규모의 문화에 보여주는 데에 아카이브가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⁷⁾

공동체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체성을 형성 유지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들은 아카이브를 통해 ‘기억의 공동체’를 추구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에 대한 아카이브’가 아니라 ‘공동체가 주체가 되는 아카이브’가 되어야 한다.²⁸⁾ 자신들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소외되거나 배척받아 왔던 집단의 경우, 자신들의 정체성을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독립성은 더욱 중요하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국의 기록학자들은 아카이브에 대한 공동체의 자율성과 통제권한을 특히 중시하며, 스티븐스(Stevens) 등도 “원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자신들의 언어로 기록하고 이용”하는 것이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²⁹⁾

이러한 이유로 영국의 많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주류 문화기관에 중

27) *ibid.*, p.313.

28) 이경래, 이광석, 앞의 글, 3~39쪽.

29) Mary Stevens, Andrew Flinn and Elizabeth Shepherd,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1-2), 2010, pp.59~60.

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이 문화 기관과의 협력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주류 문화기관에 공동체 기록을 기증하거나 위탁할 경우 오히려 “공적 영역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닌다.³⁰⁾ 공동체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들려주기 위하여” 독립적인 공동체 아카이브를 만들 수도 있지만 주류 문화기관에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위한 장소를 확보하려는 방식도 시도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소외집단의 정체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다.³¹⁾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독립성보다 어쩌면 자율성이며, 공동체가 기록의 평가 선별을 포함한 관리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대한 공동체의 자율적 통제와 가치판단이 중요해지면서 전문적 아키비스트가 평가의 주도권을 갖는 기존의 평가방법론은 어쩌 보면 무용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평가는 공동체에게 그대로 맡겨두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 전문가와 공동체가 평가영역에서 협력해야 한다면 과연 어떤 접근법을 선택해야 할까?

(2) 기억투쟁과 다양한 내러티브의 수용

앞서 밝혔듯이 집단기억은 집단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집단’은 기억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결국 기억하는 주체는 개인이지만, 개인의 ‘기억하기’는 모두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개념이 ‘집단기억’이다.

그러나 기록학자인 지머슨은 집단기억을 만드는 방식으로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위험하다고 주장하며, 집단기억의 의도적 형

30) Andrew Flinn, et al. op. cit., p.66; 이경래, 이광석, 앞의 글, 33쪽에서 재인용.

31) Randall C. Jimerson,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p.313.

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³²⁾ 국가는 집단을 응집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기억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하고, 이렇게 형성된 집단기억은 그 사회의 빈곤층과 저학력층 등과 같은 “주변부집단을 희생시키고 지배계급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를 왜곡하는 위험”을 내포하며, 사회 안정이나 “국가 건설이라는 미명하에 국가의 기억들을 왜곡”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³³⁾ 그는 또한 미국에서 유산(heritage)이란 “국가의 역사 혹은 인종집단의 역사, 소수집단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집단기억을 형성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며 역사의 실제성보다는 긍정적인 역사적 양상만을 선별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걸러내 버린 것이라고 비판한다.³⁴⁾ 이때 집단기억은 권력으로 행사되며,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기억의 구축은 일종의 정치적 행위이자, 이른바 기억투쟁이 된다.

그렇다면 공동체 아카이브와 공동체의 집단기억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헤드스트롬(Hedstrom)은 “기록은 집단기억의 재현물(representatives)이 아니며, 기록관리기관 역시 집단기억의 보관소가 아니”고, 다만 기록은 “잊혔던 기억을 발견하거나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자원”이라고 보았다.³⁵⁾ 기록이 곧 기억이라면 기억은 고정된 시간과 장소에만 존재할 뿐이고, 잃어버리거나 되찾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록이 잊혔던 기억을 되찾게 하는 매체이며, 또한 집단기억 역시 변화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은 소위 ‘바람직하고 기념할 만한 유산’이라는 이름에서 배제되거나 잊혔던 집단의 기억을 되살리고 이를 사회적 기억의 일부로 환원시킨

32) *ibid.*, pp.294~301.

33) *ibid.*, pp.296.

34) *ibid.*, pp.295.

35) M. Hedstrom, Archives and collective memory: more than a metaphor, less than an analogy. In: Eastwood T, MacNeil H(ed.), *Currents of Archival Thinking*.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2010.

다는 의미를 갖는다. 아카이브를 통해 공동체는 자신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사회에 들려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기억은 “적극적인 사고와 의도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지 수동적인 축적물이 아니며”³⁶⁾ 집단 기억 역시 공동체의 활동과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바뀐다는 데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이거나 기억은 과거의 조각들을 선별하여 현재를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나 영상으로” 만들어주며, “기억은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가 동시대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창(窓)이다.³⁷⁾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브는 사회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그러나 국가나 권력 집단이 선점한 “하나의 지배적인 대서사(메타 내러티브)”를 수용하는 대신 공동체 아카이브는 다양성의 대항서사(카운터 내러티브) 공간, 심지어 대항서사에 대항하는 서사(카운터-카운터 내러티브)가 공존하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³⁸⁾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에서의 기억 프로젝트는 하나의 대서사를 다른 대서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어떠한 공동체의 과거든지 단일한 스토리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개념을 깨부수는 것을 의미한다. 주류에 의해 획일적으로 묘사되거나 아예 배제되어왔던 많은 공동체들이 이처럼 자기 공동체 내부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해방을 의미한다고

36) Randall C. Jimerson,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p.314.

37) *ibid.*, p.295.

38) A. Dunbar A, Introducing critical race theory to archival discourse: getting the conversation started. *Archival Science*, 6, pp.109~129; Michelle Caswell,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p.313에서 재인용.

할 수 있다.³⁹⁾ 따라서 공동체 아카이브를 통해 ‘거대서사 만들기’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러한 작업은 어쩌면 역사가나 사회학자의 몫일 것이다. 파시즘에 대항했던 이탈리아 역사철학자 크로체(B. Croce, 1866~1952)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라는 명제를 통해 역사는 현재 관점에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며 미래의 목적과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⁴⁰⁾ 이때 역사가는 사실(史實)을 사관(史觀)에 따라 평가함으로써 거대서사를 만드는 데에 일조한다.⁴¹⁾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나 하나의 ‘이야기(story)’를 직접적으로 생성하는 것은 아카이브의 본령이 아닐 것이다. 물론 의도된 기록의 수집과 선별을 통해 공동체의 집단 내러티브가 형성되고 여기에서도 기억투쟁이 전개되며,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가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공동체의 과거 이야기(stories)를 모으는 방식을 통제하는 대안적 장소로 기능”⁴²⁾할 수 있다. 더욱이 아카이브에서 거대서사에 집착하는 것은 공동체 권력이 단일의 기억을 강요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거대서사가 개인의 작은 서사들을 사상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캐스웰은 “활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일수록 “복잡한 불협화음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경계, 공동체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 불일치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⁴³⁾ 공동체 아카이브가 다양한 내러티브를 수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

39) Michelle Caswell,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p.313.

40) “history” 네이버지식백과. [2016. 4. 10 인용]

41) 5·16혁명이 5·16군사정변으로, 5·18 광주사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뀌는 것은 현재 관점에 따라 과거 역사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역사가들은 과거의 사실을 평가함으로써 거대서사를 만드는 데에 적극 기여한다.

42) Michelle Caswell,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p.313.

43) *ibid.*, p.313.

지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승억은 ‘기억투쟁’과 ‘기억하기’의 공존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⁴⁴⁾ 그런데 의도성과 다양성을 공동체 아카이브의 본질로서 인정한다면 이러한 아카이브의 평가에는 과연 어떤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3) 아카이브 가치의 개별성과 사회적 의미

공동체의 응집된 정체성을 드러내는 플랫폼, 기억투쟁으로서 공동체 내러티브의 의미 등을 고려한다면 공동체 아카이브는 모두 고유하고 개별화된 가치를 가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여기에 기록평가가 개입될 여지는 거의 없다. 윤은하는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에서 “개별 공동체에 대해 혹은 그 기록의 가치에 대해 상대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공동체 기록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공동체 각각의 고유하고 개별적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⁴⁵⁾

개별 공동체는 이렇게 “고유한 인식체계와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개별성의 탄생은 결국 공동체가 속한 사회구조의 영향력과 상호교류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⁴⁶⁾ 공동체 아카이브 역시 특정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역사 및 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가치를 평가하려면 그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공동체의 탄생과 활동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노동아카이브를 이해하려면 영국 노동의 역사와 노동 계급의 문제를, 호주의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를 이해하

44) 이승억,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의 진상 규명과 기억을 둘러싼 투쟁」: 서평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한국전쟁과 학살, 그 진실을 찾아서』(김동춘 저, 파주: 사계절, 2013). 『기록학연구』, 38, 2013, 311~316쪽.

45)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2012, 31쪽.

46) 위의 글, 31쪽.

려면 호주 정부의 토착 원주민 정책과 갈등의 역사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흑인과 이민자 공동체 아카이브 이해를 위해서는 미국의 인종문제와 소수민족 간의 긴장관계를 알아야 한다.⁴⁷⁾ 이 밖에 여성, 성 소수자, 이민자 등의 공동체는 각 나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각 나라마다 이들 공동체의 역사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아카이브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어떠한 정치·경제적 경험을 하고 어떠한 가치체계를 발전시켜왔는지”를 함께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공동체가 사회에 미친 영향과 반대로 그 사회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 양자의 상호과정을 파악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수집, 생성하는 것은 공동체 아카이브의 중요한 업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업무는 전문적인 아키비스트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주류 문화기관이 공동체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자 할 때 국가나 해당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거나 국민(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동체의 기록이 우선적으로 선정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가치가 공동체 아카이브의 가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사회에서 수용될 수 없는 이념이나 주장을 가진 공동체의 기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수용해야 하는가? 아카이브 관점에서는 적어도 그렇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이 주류 문화기관에 아카이브를 기증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는 해도 이러한 아카이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긴 어려울 것이다. 이 역시 공동체 아카이브 가치의 개별성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 및 그 아카이브의 개별적 가치를 인식하고, 아울러 공동체 아카이브가 당대의 문화와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기록평가의 목적이 수집을 위한 선별에서 기록의 가치를 재발견하

47) 위의 글, 31쪽.

고, 사회 속에서의 기록의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으로 재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4) 기억과정으로서의 공동체 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의미는 기억의 결과로서 아카이브가 아니라 기억과정으로서의 아카이브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아카이브를 통해 자신들의 기억을 확인하고 동일시하는 가운데 공동체 정체성을 다질 뿐 아니라, 아카이브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기억형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아카이브를 통한 구성원들의 공동체 귀속감의 강화는 사회통합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사회 통합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사회 구성원이 정체성을 갖도록 통합하는 일이며”⁴⁸⁾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 대한 주체의식을 가질 때 실현될 수 있는 가치이다.

영국의 아키비스트 유안 홉킨스(Ieuan Hopkins)는 박물관, 아카이브, 미술관이 사회통합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기관들이 공동체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문화자원 중 하나인 고유한 수집물을 통해 공동체의 정체성 정립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제된 사람들과의 연대와 더 능동적인 역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⁴⁹⁾ 주류 문화기관들이 공동체를 수집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기록을 평가하고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실천과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

48) “사회통합”, 위키백과사전. [2016. 4.10 인용].

49) Mark A. Greene, Into the deep end: One archivist’s struggles with diversity, community, collaboration, and their implications for our profession. In Mark A. Greene and Katharyn M. Neal. ed. *Through the Archival Looking Glass: A Reader on Diversity and Inclusion*. Th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14, p.28.

사점을 준다. 특히 기억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평가과정에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5) 현재진행형 기록과 디지털 개인기록

현재 활동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기록을 생산하고 있다. 인터넷 공동체가 아닌 경우에도 공동체 구성원들은 SNS나 인터넷을 통해 많은 의견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소통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운동 아카이브’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개인 이메일, 웹사이트와 블로그, 인터넷 카페도 등에 올라갔던 기록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인기록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공동체 활동에는 내부의 구심조직에 의한 활동도 있지만 조직에 포섭되지 않은 많은 구성원들의 활동도 포함된다. 구성원들이 견고하게 혹은 느슨하게 공동체에 속해있지만 이들 개개인의 경험은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인기록의 선별에도 기존의 평가론이 해답을 주지는 못한다. 한편 공동체에는 오래된 기록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활동과정에서 많은 디지털기록들이 생성되고 있다. 디지털기록이 양산되는 환경에서 선별적 수집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디지털기록의 ‘휘발성’을 고려하면 ‘진행형 기록화’를 위한 평가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3. 기록평가론의 전개와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에서의 시사점

3장에서는 기록평가론의 흐름을 테리 쿡(Terry Cook)의 패러다임별로

살펴보았다.⁵⁰⁾ 그는 보존기록관리 패러다임(archival paradigm)이 증거, 기억, 정체성 패러다임을 거쳐 2010년 이후 공동체 패러다임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기록평가에 대한 관점도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평가론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논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된 바 있으나⁵¹⁾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론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평가이론의 흐름상 어떤 지점에 위치하게 될지를 생각해보기 위하여 재정리하였다.

1) 기록속성론에 입각한 생산자 중심의 평가

1850년대-1930년대 기록관리의 흐름을 규정한 증거패러다임에서 기록의 핵심 가치는 법적 증거였다. 영국의 기록학자이자 PRO(Public Records Office, 현재 TNA)의 아키비스트였던 힐러리 쟈킨슨(Hilary Jenkinson)은 1920년대 초에 기록은 본래 불편부당한(impartial) 증거이며 아키비스트는 그러한 증거의 수호자라는 취지의 기념비적 저서를 발표하였다.⁵²⁾ 그에게 기록은 행정 업무의 자연적인 부산물로서, 기록 생산자의 행위에 대한 무결한(untainted) 증거이자, 생산자가 형성한 ‘유기적 종합체(original whole)’였다. 따라서 기록이 생산된 이후에는 어떠한 사후적 개입이 있어서도 안 되고, 생산자가 만든 ‘유기적 종합체’에서 아키비스트가 평가행위를 통해 특정 기록만을 떼어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아키비스트의 ‘개인적 판단’이 기록이 가진 본연의 특성인 불편

50) Terry Cook,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 2013. pp.95~120.

51) 이승역의 평가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이 기록평가론의 흐름을 잘 짚어주고 있으며(각주 11 참조), 이경래는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에서 가치론과 기능평가를 다루고 있다.

52) Hilary Jenkinson, *A Manual of Archive Administration*. Oxford: Clarendon Press, 1922.

부당성(impartiality)을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비 평가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기록의 규모가 커지면서 과거와 같이 생산된 모든 기록을 보존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젠킨슨은 평가선별을 하되 그 주체는 행정 관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키비스트들은 미래의 활용을 고려한다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결국 주관적 판단에 따라 평가를 함으로써 기록의 본질을 훼손하게 된다는 것이다.

평가 업무에 대한 젠킨슨의 관점은 현대의 복잡한 기록 관리환경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기록의 증거적 속성에 대한 통찰은 신젠킨슨주의를 형성할 만큼 오늘날의 아키비스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테리 쿡은 호주의 수 맥케미쉬(Sue McKemmish)와 프랭크 업워드(Frank Upward) 등이 고안한 ‘기록연속체에 걸친 설명 책임성(accountability)’도 젠킨슨의 증거 개념에서 발전된 것이라고 보았다.⁵³⁾ 정보가 증거로서 기능하기 위해 일정한 특징(무결성, 완결성, 정확성, 신뢰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증거로서의 특징이 기관의 내부적 설명책임성과 민주사회에서의 공공책임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아키비스트를 수동적 보관자로 보았던 젠킨슨과 달리, 이들은 적극적인 중개자이자 감사자로 본다는 차이가 있다.⁵⁴⁾

보존기록의 속성으로서 ‘유기적 종합체론’을 강조하고, 사법적 유산으로서 기록의 가치를 중시했던 이 패러다임에서 공동체나 개인의 기록은 관리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공식조직에서 생산되지 않았고 법적 증거력이 미약한 기록은 곧 ‘가치가 낮은 기록’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젠킨슨이 기록의 본질적 속성에 근거하여 생산자가 평가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공동

53) Terry Cook, What is past is prologue: a history of archival ideas since 1898, and the future paradigm shift. *Archivaria*, 43, 1997, p.25.

54) *ibid.*, pp.39~40.

체 구성원이 평가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에도 유사하다. 기록의 본질과 가치를 보는 관점은 양자가 달랐지만, 결국 기록생산자가 기록을 평가할 수 있는 책임자라는 인식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2) 기록가치론에 의한 기록의 활용가치 평가

1930년대~1970년대는 기억 패러다임이 주도한 시기였다. 경제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서 국가기록의 양이 폭증하면서 적극적인 평가와 폐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아키비스트들은 전체 생산 기록 중 3~5% 정도만 남길 수 있는 대규모 폐기 환경에서 기록평가를 생산자에게 맡겨두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아키비스트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적극적이고도 합리적인 평가 체계를 도입을 위하여 이들은 기존 패러다임과는 다른 접근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 쉘렌버그(T. R. Schellenberg)와 미국 아키비스트들이 제안한 기록의 생애주기 개념이다. 생애주기 개념에서는 기록(records)과 보존기록(archives)을 구분한다. 네덜란드 매뉴얼이나 쉐킨슨적 시각에서는 모든 기록이 'archives'였다. 그러나 쉘렌버그는 '유기적 종합체'인 'records'에서 보존을 위하여 극히 일부만을 선별한 것을 'archives'라고 칭하였다. 이때 'archives'를 선별할 책임은 아키비스트가 지게 된다. 쉘렌버그가 제시한 'records'와 'archives'의 구분법은 기록관리 사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받는다.⁵⁵⁾

기록의 평가선별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 근무했던 쉘렌버그는 선배인 바우어(P. sBauer)나 브룩스(Brooks) 등의 작업을 발전시켜서 기록의 가치 분류에 기반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기록가치론이다. 그는

55) *ibid.*, p.28.

기록의 가치를 일차적 가치와 이차적 가치로 구분하였다. 일차적 가치는 기록이 생산자의 업무 수행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하는 가치로서 켈킨슨의 관점과 유사하다. 기록의 장기적 보존을 위해서 고려할 가치는 증거가치와 정보가치로 구성되는 2차적 가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증거는 켈킨슨이 강조한 ‘증거’와는 다른 개념이며, 후대 연구자들의 이용과 관련된 가치였다. 따라서 쉘렌버그의 증거가치는 넓은 범주의 정보가치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쉘렌버그는 이렇게 정보적 가치를 매우 중시하였는데 이때 정보로서의 중요성은 역사학 교육을 받은 아키비스트가 역사학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었다. 즉 역사 연구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록이 중요한 기록으로 평가되었다.⁵⁶⁾ 생애주기 접근법과 기록가치에 따른 평가선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국의 국가기록 평가정책은 불필요한 기록을 배제하는 방식에서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⁷⁾

기록의 가치를 이용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쉘렌버그의 시각은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았다. 제럴드 햄(Gerald Ham)은 쉘렌버그의 이용중심적인 기록의 선별 방법이 “폭넓은 인류사적 경험을 반영하기보다는 지엽적인 연구 취향을 반영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았고, (...) 아키비스트는 기껏해야 역사학의 바람 방향에 따라 움직이는 풍향계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⁵⁸⁾ 또한 테리 쿡은 쉘렌버그의 이용중심적 접근법에 대하여 “생산자의 활동에 따른 유기적 맥락에서부터 기록을 분리시키며, 평가 및 기술 업무에 기록과 출처 외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⁵⁹⁾이라며 비판하였다. 즉 역사학적 활용 관점에서의 중요성은 기록이나 기록의 출처에서 비롯된 잣대가 아니며, 이러한 잣대로 기

56) *ibid.*, p.27.

57) 이승억, 「기록 평가선별 결정 분석에 관한 연구」, 37~80쪽.

58) F. Gerald Ham, “The Archival Edge,” in Daniels and Walch, *Modern Archives Reader*, pp.328~29, Terry Cook, *What is past is prologue*, p.29에서 재인용.

59) *ibid.*, p.29.

록을 평가할 경우 기록의 유기적인 맥락을 파괴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인 및 공동체기록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이었다. 공공기록뿐 아니라 민간기록의 수집 활동이 활발해졌는데 이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역사 연구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법, 군사, 외교 중심의 역사 연구에서 사회, 문화, 경제, 과학 활동에 대한 연구로, 유명인에서 보통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역사가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도서관, 박물관, 특수기록센터 등에서 다양한 집단의 기록과 개인기록을 수집하였고, 특히 시민 개개인과 집단을 다룬 케이스 파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다.⁶⁰⁾ 결국 이 패러다임에서 개인이나 공동체의 기록은 오직 역사연구에서의 활용가치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론은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북미지역의 경우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는 주로 주류 문화기관으로의 수집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었기 때문에 북미의 아키비스트는 웰렌버그의 전통을 이어받아 학술 연구자 등 이용자들의 잠재적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⁶¹⁾ 반면 독립적 공동체 아카이브를 강조하는 영국에서는 생산자로서 공동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아카이브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과 대비된다.⁶²⁾

공동체기록을 연구에서의 활용가치에 입각하여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보존하거나 수집할 기록을 선별하는 방식은 공동체의 기록을 대상화하고, 공동체의 기억 가치를 타자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수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록이 공동체 및 공동체 활동이라는 출처로부터 유리되어 탈맥락화되거나 파편화된 ‘자료’를 만들어낼 우려도 있다.

60) 설문원, 「로컬리티와 지방기록관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2015, 151~171쪽.

61) 이경래, 앞의 글, 2013, 247쪽.

62) 위의 글, 247쪽.

3)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거시평가론

1980년대 이후 기록평가 영역에서 기존과는 다른 접근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른바 ‘사회적 접근법(societal approach)’이다. 쉘렌버그나 쟈킨슨은 모두 국가기록물관리기관의 아키비스트였고 이들은 정부 중심의 관점에서 평가론을 전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록을 평가할 때 사회 전체를 보다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이는 독일, 미국, 캐나다에서 큰 반향을 얻었다.

사회적 접근법을 처음으로 제기한 독일의 한스 붐스(Hans Booms)는 “사회가 스스로의 핵심적 가치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반영되어야(representatively mirrored) 한다”고 주장하였다. 역사학자와 같은 특정 이용자나 정부 행정가가 아니라 사회 스스로가 사회의 중요한 가치를 찾고, 이에 따라 기록의 중요성이 결정하며 기록의 보유 양상이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⁶³⁾ 그렇다면 당대 사회가 중시하는 핵심 가치는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붐스는 간접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중시하는 가치는 사회 여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그 사회의 핵심적인 기록 생산자들의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기록 생산자의 기능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접근법은 1980년대 후반 캐나다에서 개발된 거시적 평가·수집 전략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기록의 주제나 내용이 이용자의 요구나 역사연구의 경향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기록학과는 달리 캐나다 접근법에서는 기록 생산자의 기능, 활동, 업무와 같이 기록이 생산된 맥락과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평가의 초점이 ‘기록’ 자체가 아니라 거시적인 기록 ‘맥락’에 있기 때문에 거시평가라고도 불리는 이 접근법은 ‘출처’ 개념을 재해석하고 물리적인 원칙에 가까웠던 전통적인 출처주의를 보

63) Terry Cook, What is past is prologue, p.30.

다 개념적인 원칙으로 재정립하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⁶⁴⁾ 생산자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시평가의 원리는 우리나라의 공공기록물 평가에도 적용되었다.⁶⁵⁾

테리 쿡의 거시평가론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토대로 기록을 평가해야 한다. 이때 사회적 가치는 “정부의 기능과 시민과의 상호작용, 즉 정부의 기능을 실현하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대하고, 항의하고, 변화시키고, 수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으며, 거시평가의 요소에는 “기록 생산자로서 구조와 사람, 사회적·역사적 과정으로서 기능과 활동, 기능과 구조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에 영향을 받는 시민과 고객”이 포함된다.⁶⁶⁾ 쿡은 이러한 세 영역에서의 개체 및 각 개체가 만나는 접점을 아키비스트가 분석하고 기록함으로써 기록평가에 사회 전반의 포괄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⁷⁾

이러한 사회적 접근법을 채택한 또 다른 이론은 미국에서 등장하였는데 헬렌 새뮤얼스(Helen Samuels)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이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의 주요 테마, 이슈, 활동, 기능을 기록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기관 협력적인 분석 및 수집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의 기록관리가 기록 자체나 기록 생산기관보다 더 높은 차원의 분

64) *ibid.*, p.31.

65)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기록물법 제정 이후 기능 기반의 기록 평가방식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스 붐스가 생산자의 기능 분석에 입각한 평가를 주장한 것은 이를 통해 그 사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선별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각 조직에 편재된 최하위 기능에 대한 평가방식으로는 당대 사회상이나 정체성을 반영한다는 사회적 접근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우며, 새뮤얼스의 주장에서도 드러나듯이 “기록 자체나 기록 생산기관보다 더 높은 차원의” 거시적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66) Terry Cook, “We are what we keep: we keep what we keep’: archival appraisal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32(2), 2011, p.173; 이경래, 앞의 글, 2013, 250~251쪽에서 재인용.

67) 이경래, 위의 글, 2013, 247쪽.

석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새뮤얼스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정부기록물과 함께 개인기록, 시각 매체, 출판물, 구술사 등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록의 출처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주제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주제 선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웰렌버그적 전통과 마찬가지로 “풍향계적” 오류를 범할 여지가 크다는 비판이었다. 그러나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정부기록이 아닌 개인기록이나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기록의 수집에 강점이 있다는 인정을 받기도 하였다.⁶⁸⁾

사회적 접근법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람은 캐나다의 휴 테일러(Hugh Taylor)이다. 쿡은 그를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그보다 더 잘 표현한 학자는 없다”⁶⁹⁾고 평가한다. 캐나다 국립기록관의 “토틸 아카이브” 정책의 핵심 설계자인 테일러는 아키비스트들이 기록이 고대-중세-산업사회-정보사회로 이어지면서 구술기록-문자기록-시각기록-전자기록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호작용적인 전자 커뮤니케이션의 세계에서 “개념적 구술성으로의 회귀(a return to conceptual orality)”를 포착하였다. 이것은 단어나 문서가 “맥락(문맥), 그리고 맥락에서 발생한 행위와 밀접히 연계되었을 때에만” 의미를 지녔던 중세적 프레임워크로의 회귀를 뜻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구술적 전통에서 의미(meaning)란 “기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증거’로서 기능하는 활동(transactions)과 관행(customs)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⁷⁰⁾ 아키비스트들이 새로운 ‘사회적 역사학(social historiography)’을 수용하고 “기록이 어떻게, 왜 생성되었는가”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테일러의 주장을 지지하며 테리 쿡은 아키비스트들이 ‘개별 문서와 시리즈’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식의 구조와 패턴을 확인’하는

68) Terry Cook, What is past is prologue, p.33.

69) *ibid.*, p.34.

70) *ibid.*, p.34.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하였다.⁷¹⁾

이러한 철학에 입각하여 도입된 캐나다의 토탈아카이브 정책에서는 공공기록뿐 아니라 민간기록의 수집주체도 공공기록물관리기관이 되었다. 여기에는 민간기록에 대한 평가도 생산자보다 아키비스트가 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중앙 집중적인 수집체계는 인적,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여 1990년대에는 분산체계로 전환되는데, 13개 주별로 구축된 지역 차원의 통합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국가 아카이브 포털(Archives Canada)로 연계하여 캐나다 전역의 공공 및 민간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²⁾ 기존의 토탈아카이브가 물리적 수집 정책에 근거하였다면 이제는 디지털 연계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스 붐스와 테리 쿡, 휴 테일러의 평가론은 출처로서의 기능과 활동,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편 새뮤얼스의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거나 축적되지 못하면서 ‘어딘가에’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기록의 특성에 비추어보면 방법론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테리 쿡이 제안한 거시평가의 요소는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여전히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⁷³⁾

4)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 측면에서 본 기존 평가론의 한계

첫째, 앞에서 제시한 세 패러다임에서는 모두 공공기록 등 주로 공식 조직에서 생산된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젠킨슨이나 웰렌버그의

71) *ibid.*, pp.34~35.

72) 이경래, 이광석, 위의 글, 2013, 236~238쪽.

73)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경래도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의 비판적 독해」에서 언급한 바 있음.

평가론은 결국 국가기록기관 아키비스트로서의 고민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접근법에서도 개인이나 소규모집단의 기록을 고려하지만 조직이나 기능위계를 갖춘 공식조직이 생산한 기록물을 중심으로 평가론을 전개하고 있다. 거시적 기능평가의 전체는 기록을 생산접수한 ‘물리적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⁷⁴⁾ 따라서 공식조직 없이 느슨하게 연계된 공동체의 경우 이러한 평가론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둘째, 평가에 있어서 전문적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는 추세이다. 쉘렌버그에 이르러 강화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거시적 접근법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록생산자가 아니라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평가 선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기록의 가치를 균형 있게 파악한다는 장점 때문이었다.⁷⁵⁾ 그러나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한다고 해서 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공동체 패러다임에서는 주류 문화기관들이 신봉하는 “기록의 객관성과 중립성이라는 개념을 배제하며,” 주류 기관의 아키비스트들이 “기억업무의 정치적 동기에 대해 비판적”인 데 대하여 “과거에 자신들을 하찮거나 공익에 해가 되는 존재로 취급당했던 공동체”에게 아카이브를 통한 정체성의 회복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반박한다.⁷⁶⁾ 이는 평가의 주체가 공동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공동체가 주체가 되거나 적어도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록을 평가하는 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인식이 반영되고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기존 패러다임에서 평가의 목적은 주류 문화기관이 영구보존할 기록을 선별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어떤 공동체

74) 이승억, 위의 글, 2006.

75) 이승억, 위의 글, 2005.

76) Michelle Caswell,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pp.313~314.

가 더 중요한지, 따라서 어떤 공동체의 아카이브가 큰 가치를 지니는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동체 아카이브마다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는 기존 평가론의 적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이 선별을 넘어 공동체 및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회적 가치를 조명하는 일종의 ‘재평가’가 목적으로 추가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에게도 의미가 있지만 또한 공동체 아카이브가 당대의 문화와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보존되어야 할 유산이다.

넷째, 평가의 기준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기록의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와 구조 기능에 주목”하는 반면 미시적 관점에서는 “기록 평가에서 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치를 객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⁷⁷⁾ 그러나 이는 모두 공동체 기록을 평가하는 데에 적절한 기준이 되지 못한다. 거시평가론에서는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제외하고는 실재하는 조직의 기능을 중시하며, 조직의 기능과 활동의 중요성에 따라 기록을 평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동체 기록과 같이 비공식적 활동을 통해 생산된 기록은 부차적으로만 고려하게 되며, 특히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기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4.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 모형을 위하여

1) 평가의 목적과 대상

테리 쿡은 독립적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이 기존의 기록 및 기록관리에 대한 관점과는 명백히 구분되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부상하

77) 이승억, 위의 글, 2006.

고 있다고 진단하였다.⁷⁸⁾ 디지털 환경에서 수많은 개인이나 공동체가 기록생산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들은 공식조직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기록을 만들고 수집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구축된 공동체 아카이브는 조직이나 기능의 기록화, 그 사회의 전체상이나 정체성을 반영하는 기록화를 지향하지는 않는다. 이들에게 기록은 공동체의 역사와 경험, 생활을 기억할 수 있고 공동체가 사회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억의 터’로서 공동체는 여기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아가 이를 외부에 표출함으로 주류기억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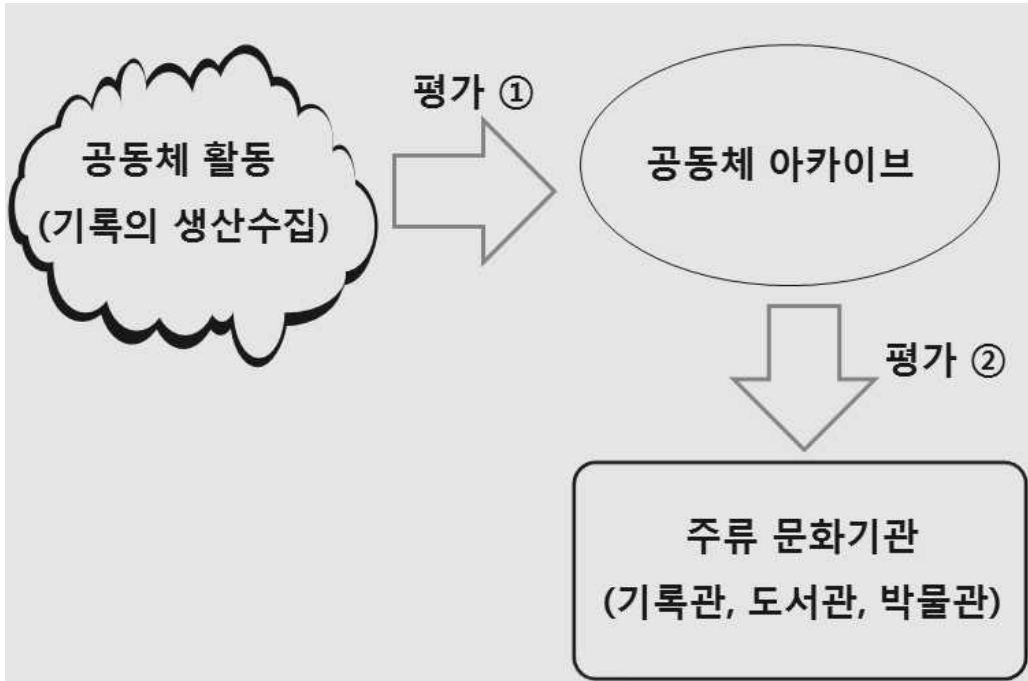
국가 차원에서 혹은 개별 기록관리기관 차원에서 논의되는 평가론은 기관의 소장물을 다양하게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이나 공동체 기록을 바라본다. 사회적으로는 위험에 처해있는 기록을 안전하고 장기보존이 보장되는 ‘전문적인 기록관리기관’으로 입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자의 주요 역할은 ‘안전한 보관소’로 수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 기록을 선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의 가치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계되면서 평가의 목적이 달라진다. 이들에게 기록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내부적으로 확인하거나 외부로 표출하는 도구이며, 공동체가 스스로 기억하는, 혹은 기억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축적된 기억저장소이다. 따라서 평가도 이러한 지향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적 차원에서 공동체 기록의 평가는 두 가지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보존할 기록의 선별하는 것이고 둘째는 기록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가 이루어지는 국면에 따라 양 목적의 중요도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볼 때 평가는 <그림 1>과 같이 두 개의 국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평가 ①로 모든 평가가 종결될 수도 있다. 공동체가 자신의 기록

78) Terry Cook, Terry Cook,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2013.

을 주류 문화기관으로 이관하지 않거나 주류기관이 이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의 국면



첫 번째 평가 국면은 공동체가 남길 기록을 선별하기 위한 활동이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가치관과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게 자신들의 기록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남길 기록의 선별을 통해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내러티브가 개입된다. 물론 기록의 희귀성, 진본성 등과 같은 일반 기준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평가 대상은 ‘수집한’ 기록과 ‘수집할’ 기록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수집된 기록 중에서 보존할 기록을 선별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수집, 획득할 기록을 확인하는 결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웹이나 소셜네트워크 등의 미디어에 포함된 기록을 획득하는 ‘진행형 기록화’를 위한 평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국면은 주류 문화기관이 공동체 기록을 선별적으로 수집하는 경우, 혹은 공동체가 자신들의 아카이브를 주류 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평가이다. 선별 수집을 위한 평가인 경우 주류 기관이 평가의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지만 ‘스튜어드십’에 입각한 위탁인 경우 공동체가 주축이 되고 주류 기관의 아키비스트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그 목적과 산출물이 달라져야 한다. 여기에는 선별을 위한 평가뿐 아니라 기록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록을 외부로 드러내는 플랫폼을 선택한 것이며, 그 기록의 가치와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한편 수집했거나 위탁 받은 주류 기관의 아키비스트는 좀 더 거시적 차원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평가의 원칙과 기준

공동체와 주류 문화기관 아카이브의 목적은 다르다. 동일한 기록(공동체의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지만 외부자로서 주류 문화기관과 내부자로서의 공동체의 관점은 다를 것이다. 공동체에게 아카이브는 정체성 강화와 집단기억의 공유라는 목적에 부응해야 한다. 문화기관의 경우 소장물의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며, 얼마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친 집단인지, 기록이 그들의 활동을 보여주는 데에 얼마나 충실한지 등을 평가할 것이다.

캐스웰은 전문 아키비스트가 공동체의 기억 작업(memory work)에서 배워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원칙을 참여, 분담 관리, 다양성, 행동주의, 반영성이라는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⁷⁹⁾ 이중 참여, 분담 관리, 다양성의 원칙은 평가 영역에서 특히 고려할 필

79) Michelle Caswell,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pp.307~322.

요가 있다. 다양성의 원칙에서 캐스웰은 기록형태와 매체의 다양성과 관점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⁸⁰⁾ 현수막, 포스터, 박물, 카세트테이프, 팸플릿, 전단지, 비디오, 잡지, 블로그, 웹사이트 등을 포함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생산한 구술사, 사진, 비디오자료 등 공동체 아카이브에 포함되는 자료는 기록, 출판물, 박물을 모두 아우르는 수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존기록관이 어떤 공동체의 아카이브를 수집한 경우 단순히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생산자 집단의 기록이 더해졌다는 의미에서의 다양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기록이 공동체의 활동의 증거가 될 만큼 얼마나 집적된 밀도로 존재하는지, 기록의 조직체계(organizing system)에 공동체의 인식이 얼마나 잘 반영되어 있는지 등이 다양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그 공동체가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당대 사회구조와 문화적 맥락에서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동체는 정형화된 기록생산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끝없이 부유하는 것들이 다양성에 기여”⁸¹⁾하도록 공동체의 기록 획득 체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자발적으로 전체 아카이브 네트워크 속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동체를 위한 정체성 강화는 단지 ‘기록을 많이 축적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기록집합체 하나를 더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기록을 공동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아카이브 평가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는 핵심적이다.

공동체나 주류 문화기관의 평가 참여자들은 기록을 평가하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 이때 테리 쿡이 제안한 거시평가 구성요소를 응용하여 공동체 기록화 및 평가를 위한 요소를 설계할 수 있다. “기록 생산자로서 구조와 사람, 사회적·역사적 과정으로서 기능과 활동, 기능과 구

80) *ibid.*, p.313.

81) 하태석, 건축의 지역성을 다시 생각한다. 이화여대 제12회 김옥길 기념강좌, 2012, <<http://www.scale.kr/home0/12->>.

조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에 영향을 받는 시민과 고객”이라는 구성요소를 <표 1>과 같이 공동체 아카이브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각 요소는 선별뿐 아니라 획득을 위한 기준이며, 기록의 가치 설명에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하다. 공동체는 경험과 기억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아키비스트는 사회적 맥락에서부터 하향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는 “만들어진 배경 특히, 사회적 배경에 의해 의미나 가치를 설명”⁸²⁾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접근법을 일부 계승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대 사회에 실재하는 가치관이 담긴 계획적 기록화”⁸³⁾가 한스 봄스의 평가론이었다면, “공동체의 가치관이 담긴 계획적 기록화”를 추구하는 것이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하향식 접근법보다 상향식 접근법을 명백하게 우위에 둔다는 점이라고 본다.

<표 1>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시적 평가 요소

요소 영역	내용
사회적 맥락	공동체 형성의 사회적 의미
	다른 공동체와의 관계
	사회와의 상호작용
기능적 맥락	공동체의 목표/지향
	공동체의 활동
	구심조직, 인물, 모임, 단체
경험과 기억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경험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구축된 아카이브는 우리를 이른바 ‘서사적 진실’로 인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에릭 케틀라르(Eric Ketelaar)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아카이브에 주목하면서 “위원회가 밝혀낸 ‘법적 진실’(forensic truth)은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해서 ‘서사적 진실’(narrative

82) 이승억, 위의 글, 2014, 190쪽.

83) 위의 글, 191쪽.

truth)”)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⁴⁾ 서사적 진실의 추구는 사건이 일어난 개인적, 사회적 요인, 그 사건이 개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 등을 밝히는 것이다. 특히 공동체 구성원들의 ‘경험과 기억’은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개인의 경험에 관한 기록을 통해 어떤 사건이 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개별 기억의 공유를 통한 공동체 기억이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케틀라르는 아카이브가 서사적 진실을 추구하려면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아카이브에 접근하여 다양한 논쟁을 벌이고 새로운 의견과 기록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확장되는 ‘리빙 아카이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문서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의문이 제기된 기록은 이와 상충되는 입장을 가진 문서와 상호 참조로 연계하여 양 문서가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경래는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에 주목하여 “목격자의 증언과 이에 대한 공식 기록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에는 포함된 이해당사자들에게 수정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⁸⁵⁾ 개방성은 중요하다. 특히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이를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경우, 어떤 공동체 아카이브의 경우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하고 반달리즘으로 인한 기록 훼손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3) 평가의 주체와 협력

공동체 아카이브의 원칙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다. 공동체가 평가의 주체가 되거나 공동체의 인식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가 이

84) 이경래,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2015, 36쪽.

85) 위의 글, 37쪽.

루어져야 한다. 평가에 있어서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다. 공동체 구성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수집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도 있고, 지역 행사에서 수집 우선순위에 대한 공동체의 피드백을 요청할 수도 있으며, 공동체에서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이 평가 결정을 할 수도 있다.⁸⁶⁾ 이러한 방식들의 공통점은 의사결정자들이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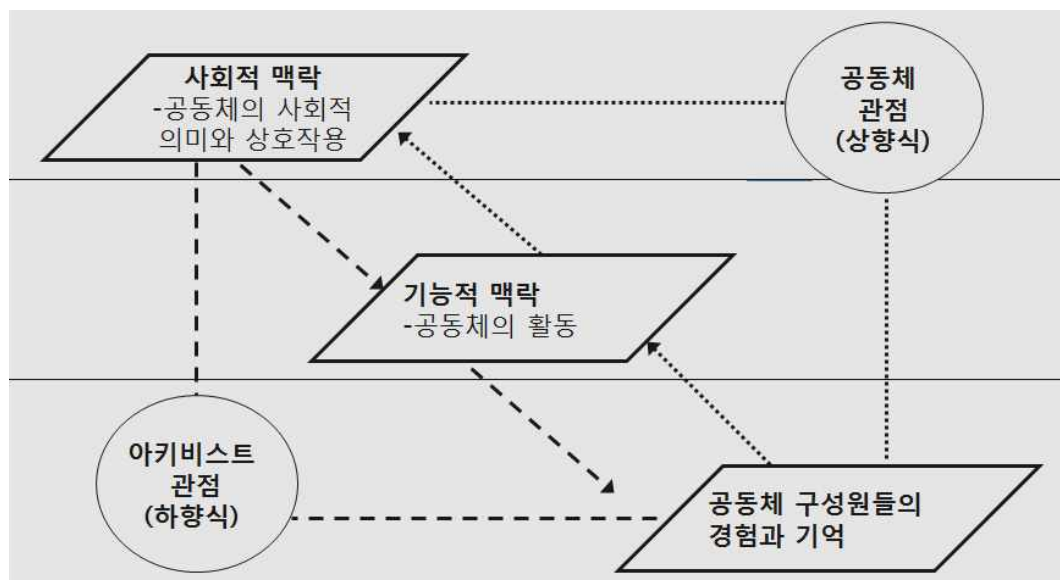
젠킨슨이나 셀렌버그 등의 전통적인 평가선별의 전제는 기록의 의미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능에 따라 기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도 이러한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기록 자체와 기록을 해석하는 주체를 구분하고 나아가 다양한 주체의 해석에 초점을” 두며 “집단의 사회적 인식과 기억운동이 기록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주장은 자칫 기록 의미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⁸⁷⁾ 공동체 아카이브의 일차적 이용주체이자 해석주체는 공동체 구성원이다. 따라서 만약 선별을 위한 평가를 해야 한다면 이들의 해석에 평가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림 1>의 두 번째 평가국면에서는 주류 문화기관의 ‘참여’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누구보다도 공동체에게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억저장소이며 지식자산이다. 양자가 협력적으로 평가에 수행하기 위한 역할 참조 모형을 <그림 2>와 같이 설계하였다. 공동체는 상향식 관점으로, 주류 기관의 아키비스트는 하향식으로 공동체 아카이브의 선별과 가치 부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억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림 2>는 공동체의 ‘사회적 기록화’를 위한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86) Michelle Caswell,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p.311, pp.315~316.

87) 이승억, 위의 글, 2013, 189~223쪽.

<그림 2> 공동체 아카이브 평가를 위한 역할 참조 모형



협력방식은 공동체의 특성에 맞게, 이들이 주류 문화기관에 대한 태도를 존중하여 채택되어야 한다. “우리 없이 우리에게 대한 것은 없다 (nothing about us, without us)”라는 슬로건은 공동체기 아카이브에 강력한 주도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⁸⁸⁾ 공동체를 ‘위하여(for)’ 수집되었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공동체와 ‘함께(with)’라는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 속에서 공동체는 아카이브 수집에 대해 자치권을 요구한다.⁸⁹⁾ 공동체 아카이브와 주류 문화기관들과의 협력 속에서, 전문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자료 선정자’로부터 ‘기억 업무의 조력자’로 변화하게 되며,⁹⁰⁾ 모든 것을 아는 권위자로부터 수많은 전문가들 중 한 명의 전문가로 옮겨가게 된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기록물관리기관이 이러한

88) Michelle Caswell,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p.311.

89) *ibid.*, p.311.

90) Terry Cook, Terry Cook,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pp.95~120.

공동체 아카이브와 협력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도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듯이 대학의 도서관이나 기록관, 전문연구진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부산대학교 로컬리티 기록화 연구팀은 10년이 넘도록 송점탑 건설을 반대해온 밀양 주민들의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아카이브는 주민들의 시각에서 주민들의 기억을 담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지향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록관리 전문가집단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데에 이 연구가 제안한 협력형 평가 모형이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5. 맺음말

서구에서 공동체 아카이브 논의는 기록학의 큰 흐름을 형성할 만큼 거세다. 그러나 이러한 ‘풀뿌리적 기억 업무’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아직 미완의 상태이지만 앞으로의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체 패러다임은 기록평가뿐 아니라 기록학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를 위해 기존의 평가론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주류 패러다임에 입각한 세 개의 평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접근법은 방법론적으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며, 이를 응용한 협력 평가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기록학의 중요한 흐름을 주도하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평가론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는 의도에서 시작하였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다소 착잡한 마음이 들었다.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은 그 사회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동체 아카이브는 아직 척박하다. 소수자 공동체나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공동체에 대한 인본적 관심과 배려조차도 비판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기승한다. 특정 지역과 주제 중심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있으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아카이브에 걸맞은 일차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도 드물다.

이러한 환경을 생각하면 선별은 차치하고, 지금은 ‘무어라도’ 만들고 보존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평가는 선별을 위한 활동이기 전에 능동적인 ‘자기 역사 만들기’를 시작하는 작업이다. 서울의 몇몇 마을공동체를 포함하여 공동체들이 서서히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고무적이다. 기록관리전문직은 공동체 기록의 사회적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고, 아카이브 운동을 실천하도록 촉구하고 참여해야 한다. 기록관리전문가들은 왜 아카이브가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실천적 문화운동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공동체가 기록을 수집하는 것은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일이기도 하다. 공동체가 아카이브를 만들게 하고, 이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동인은 무엇보다도 구성원들이 기록의 가치를 실감하는 것이다. 한 마을공동체 전문가는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록을 만들고 관리하도록 하려면, 공유하는 기억을 되새기고 이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용 전략이 필요하고 지적한다.⁹¹⁾ 이를 위한 제안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캐스웰이 제시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원칙에는 실천(Activism)과 성찰(Reflexivity)이 포함되어 있다. 아카이브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다가가는 실천적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변

91) 유창복, 2016년도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조영삼의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발표에 대한 유창복 서울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의 토론(2016.4.8. 숙명여자대학교).

화하는 공동체 사이의 관계, 정치적, 사회적, 전문직 환경의 변화는 서구의 공동체 아카이브 실무자들에게 끊임없는 성찰을 요구한다. 아직 공동체 아카이브가 활성화되지 않은 한국의 기록전문직에게는 다른 의미에서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안정적인 주류 기관의 기록관리 너머로 우리 사회에 소외되거나 배제된 다양한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바라보아야 한다. 미래를 만드는 첫 단추 꿴기는 이러한 시선에서 시작한다.

ABSTRACT

Revisiting Archival Appraisal Theories for their Application to Community Archives

Seol, Moon-Won·Kim, Young

Community creates, receives and preserves the records, which made the community members and the entire society remember their history. As for community archives, archival appraisal is very political activity because appraisal of community records means whose memory remain alive in history. This study aims to analyze archival appraisal theories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y and community archives, and suggest appraisal model for community archives.

This study begins with examining the meaning of community archives and appraisal related issues including; i) community identity and independence of archives, ii) struggle of memory and multiple narratives, iii) uniqueness of each community and its archives, and iv) community archives as memory process and social inclusion.

At the next stage, it deals with the archival theories from Schellenberg's archival values theory to macro-appraisal, to investigate possible application of theories for community records appraisal. It finds that the societal approach of macro-appraisal have advantage to appraise the community records.

This study finally suggests the appraisal model for community archives by modifying the macro-appraisal components as well as by complying the

principles of community archives. The model consists of the purpose and object of appraisal, principle and basis of valuation, and cooperation model between mainstream repository and community.

Key words : Archival appraisal theory, Community Archives, Community documentation, Documenting locality, Politics of memory, Collective memory